



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.

- 국민일보 7월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-

1. 기사 주요내용

- 국민일보는 7.17일 「‘게임이 질병? 게임이용장애 도입여부 놓고 다시 논란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민관협의체는 게임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도입방법을 논의해서는 안 되며 2025년까지 국내 도입여부 결정 계획
 - 과거 통계청 관계자는 통계법 제22조에 의해 국제분류 기준의 특정내용을 빼고 도입 국내에 도입하면 통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.

2. 설명내용

-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,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 -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(‘19.7월~)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.
 - ICD-11 기준을 반영하는 국내 KCD-10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 예정으로 향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, 공청회,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할 예정입니다.
 - 또한, 통계청은 통계법 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으나,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

□ 민관협의체는 그동안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 결정을 위해 11차례 협의체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한편, 도입여부 결정의 근거 마련을 위한 관련 연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.

- * ①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등재 과학적 근거 분석 연구('20.8~'21.11)
- ②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기획 연구('20.8~'21.11)
- ③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연구('20.8~'21.11)
- ④ 게임이용장애 실태조사 진단도구 보완 연구('23.5~10)

○ 또한, 금년 8월중에는 기존 연구들을 토대로 국내 게임이용장애에 대한 실태조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.

□ 민관협의체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큰 만큼 연구결과 및 실태조사, 다양한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과학적 근거를 통해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입니다.

| | | | | |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<총괄> | 국무조정실 사회복지정책관실 보건정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성현국 | (044-200-2293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나진 | (044-200-2294) |
| 담당 부서 <공동> | 문화체육관광부 콘텐츠정책국 게임콘텐츠산업과 | 책임자 | 과 장 | 이영민 | (044-203-2441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권순우 | (044-203-2448) |
| 담당 부서 <공동> |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| 책임자 | 과 장 | 김연숙 | (044-202-387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김민욱 | (044-202-3871) |
| 담당 부서 <공동> | 통계청 통계정책국 통계기준과 | 책임자 | 과 장 | 박현정 | (042-481-2060) |
| | | 담당자 | 사무관 | 최기영 | (042-481-2204) |

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